

“다문화 아이들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으면”

봄 밤 진한 재즈의 선율 느껴세요

화순 출신 배다인 동화작가 ‘생각이 들리는 세계’ 출간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 당하던 아이

모험 통해 용기 얻게 되는 이야기

소수자 집단 바라보는 우리사회 민낯

“동화는 품격 높은 친구이자 영혼 집합이”



국제결혼 증가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 이민자 비율 중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 노동자 다음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열악한 경제 여건과 양육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장편 동화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배다인 동화작가의 ‘생각이 들리는 세계’ (솔트리인)는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던 아이가 모험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이다.

배 작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화를 쓰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근 기자는 장편동화를 펴낸 배 작가와 인터뷰를 했다. 책을 받자마자 이색적인 주제인데다 다문화 화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동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 작가는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재를 구상해왔다”는 것에서 보듯 배 작가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어느 작가와는 달랐다. 그동안의 활동을 조금 조곤 말하는 작가를 통해 소수자집단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가늠되었다.

배 작가의 등단작 ‘황금빛 울타리’는 다문화가

정을 소재로 했다. 이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언어 학습 능력이 뒤떨어져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는 보도에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작가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게 된 계기 또한 다문화가정의 열악한 환경을 접하고서였다. “수년 전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특강을 하며 많은 이주여성들을 만났는데 언어소통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겪게 될 고통과 좌절, 따돌림 문제가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던 거죠.”

이번 동화는 한국어가 서툰 엄마 때문에 학교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가지 못 해 선생님께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는 주인공의 이야기다. 주인공 정석은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언어 장애까지 의심받는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은빛늑대를 만나게 된다. 동화는 다소 환상적인 요소가 펼쳐지는데 정석은 은빛늑대를 만나 생각이 들리는 세계로 가게 된다. 설정이 그렇다. 그곳에서 정석은 남들과 다르다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다르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쪽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138쪽)라는 말에서 용기를 얻는다.

물론 그것에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이면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면에서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적잖은 상처를 입는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

작가는 이번 장편 동화를 10여 년 만에 완성했다. 초고를 완성했지만 대학 강의와 병행하다 보니 집중할 수 없었다. 장편은 서사와 에피소드가 적절하게 녹아들어야 하는데, 구성적인 면에서도 완결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오랜 공력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배 작가가 동화를 쓰게 된 것은 광주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처음 동화를 써서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교수님의 칭찬이 힘이 됐다. “그 교수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었는데, 예상치 않은 호평을 듣고는 자연스럽게 동화 창작의 길로 들어섰어요.”

동화를 쓰는 틈틈이 러시아 문학을 좋아해 관련 책들을 다독했다. “러시아 문학의 감성을 오롯이 느끼고 싶어 2005년 러시아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는 말에서 열정의 단면이 읽혀진다. 도스토예프스키 묘비 앞에 꽃 한송이를 놓아 두면서 “꼭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 다짐을 했었다.

그녀는 제일 좋아하는 작가로 ‘반지의 제왕’의 저자 존 로날드 로엘 톨킨과 ‘모모’의 저자 미하엘 엔데를 꼽는다. 또한 개성 만점의 주인공 뽀빠를 탄생시킨 린드그렌의 작품을 흠모한다. 국적을 떠나 좋은 작품을 읽고 영감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배 작가가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동화로 쓰게 된 것도 그런 연유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류사회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혼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다문화 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왔다”는 말에서 문학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저에게 동화는 기쁨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선물입니다. 동화를 쓰는 시간만큼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없거든요. 동화는 품격 높은 친구이자 영혼의 집합이 아닐까 싶어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2일 ‘김홍기 어쿠스틱 그룹’ 공연

진한 재즈의 선율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오는 22일 열린다.

‘김홍기 어쿠스틱 그룹’과 보컬리스트 김혜미의 공연 ‘타임 인 재즈’가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탄탄한 연주력과 무대 매너로 각종 페스티벌과 공연장에 초청되고 있는 5인조 ‘김홍기 어쿠스틱 그룹’의 연주를 만난다. 그룹은 드러머 김홍기를 중심으로 조정현(트럼펫), 이경구(색소폰), 정상이(베이스), 박종현(피아노)씨

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집 ‘김홍기&더 유로피언 커넥션’을 발매한 뒤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김홍기는 세계밴드대회 ‘Emergenza 페스티벌’ 베스트 드러머 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무대에는 차세대 재즈 디바로 인정받고 있는 재즈보컬리스트 김혜미가 함께 한다. 김혜미는 그의 1집 앨범 ‘스무디’ (2007)로 문화관광부 주관 우수 신인음반상을 수상했고 2012년 재즈매거진 선정하는 ‘재즈 피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디스 아이 디그 오브 유’, ‘원 노트 삼바’, ‘스팅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인’, ‘롭 반 바벨 그 빛을 향해’ 등을 연주한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62-613-82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홍기 어쿠스틱 그룹’

국립나주박물관 ‘마한문화 아카데미’

18일~6월 13일 매주 목요일

정철과 윤선도, 성산문과 신숙주, 정몽주와 정도전... 이들은 역사 속 라이벌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가문학의 문인들이거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총신과 배신자로 갈려야 했던 정치인이기도 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국립나주박물관 후원회와 공동으로 2019년 봄 학기 ‘마한문화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18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시~4시) 국립나주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주제는 ‘역사 속 라이벌 - 적인가, 동지인가?’이다.

18일에 첫 문을 여는 강좌는 대전대학교 김갑

동 교수의 ‘후삼국 통일의 주역, 왕건일까? 견훤일까?’이며 다음으로 ‘조선 시기문학의 두 거장, 정철과 윤선도’ (25일·이형대 고려대 교수)가 이어진다. 5월에는 ‘단종이나 세조냐, 성삼문과 신숙주’ (5월9일·이상배 서울역사편찬위원장), ‘방백이 다른 민본의 길, 전봉준과 민중렬’ (16일·박맹수 원광대 총장), ‘국가가 우선이다, 항토가 우선이냐’ (23일·김강식 한국해양대 교수)가 예정돼 있다. 6월 13일에는 ‘왕조를 위한 충성인가, 백성을 위한 혁명인가?’ 정몽주와 정도전 (김영수 영남대 교수)의 강의가 마련돼 있다.

현장접수 또는 전화(061-330-7831)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1-330-7822, 78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계간 문화담론지 ‘창’ 봄호 나와

‘광주다움’ 특집 다뤄

‘광주다움’은 무엇일까. 광주다움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행하는 계간 문화담론지 ‘창’ 봄호(통권44호)가 특집으로 ‘광주다움’을 다뤘다.

최근 광주 내 정책 및 사업에서 등장하는 ‘광주다움’의 의미와 방안을 묻자는 취지로 정치, 문화, 예술, 생태환경, 도시재생 등 각계 전문가들의 글을 실었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사는 광주다움의 핵심으로



들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뜻을 들었다.

‘문화현장’에서는 박시영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이 39주년을 맞은 5·18기념행사를, 윤수안 광주독립영화관 관장이 개관 1주년을 맞은 독립영화관을, ‘창’ 편집장인 김경희 시인은 시민극조모임 토행독을 소개했다.

‘문화진단’에서는 흥성칠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해 진단했다. 이밖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문화 관광 연계에 대한 안태기 광주대 교수의 칼럼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한편 이번 봄호는 송필용 화가의 작품 ‘역사’(2015)가 표지 작품으로 선정됐다. 문의 062-234-272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거문고 명인 유소희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

거문고 명인 유소희(사진)씨가 오는 18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연주회 ‘是道(시도)’를 연다.

606번째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일국악한마당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유소희 명인은 거문고 창작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소희 명인은 ‘16회 박죽수 국악대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날 정대석 작곡의 ‘열락’, 전인평 작곡 ‘정음



후사’ 등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아쟁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제 명인이 작곡한 ‘청홍’과 ‘남도애곡’도 관객을 만난다. 무대에는 김선제씨, 정인성·이승훈(나주시립국악단)씨가 함께 오른다. 문의 062-350-45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062-225-2157, 010-8003-9000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 흥 나 루 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허모(참영어), 샵비스트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백세 짬뽕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짬뽕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곡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기
 ☎010-9277-2011, 010-4624-8457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회원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루팡닭강정
 북구 용봉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회원
 대표 한경수 ☎010-3844-7145